

예술무용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김수인*

Fields in Motion: Ethnography in the World of Dance, edited by Dena David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2012).

『움직이는 현장: 무용계의 문화기술지』, 데나 다비다 역, 윌프리드 로리어 대학 출판(2012).

발레,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댄스가 대표하는 예술 무용은 문화기술지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가? 2012년에 출판된 『움직이는 현장: 무용계의 문화기술지 *Fields in Motion: Ethnography in the World of Dance*』는 극장 예술무용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화기술지를 수록한 선집이다. 이미 40여 년 전에 조안 키알리노호모쿠가 “인류학자는 발레를 민족무용으로 본다”(1969-70)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제인 데스몬드도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에 걸쳐 예술무용을 문화기술지 연구의 대상으로 탐구해야한다고 설파하였지만, 이 책의 서문에서 다비다는 이러한 예술무용에 대한 연구태도는 21세기에 들어 발전한 새로운 연구 경향이라고 말한다. 예술로서의 무용과 문화로서의 무용 간의 고질적인 이분법이 끈질기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인류학적 접근법에서는 (주로 백인 엘리트 예술무용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본인의 문화적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생소한 사람들의 낯선 춤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통적 인류학은 탈식민주의 관점이 발전한 뒤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즉, 현장을 하나의 일관된 실체로서 간주한 것, 객관적 관찰자가 가능하다고 여긴 점, 그리고 외부인인 연구자가 야기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무시한 점 등이 그것이다. 또 이 책은 외부인, 주로 서양인 연구자가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현장의 춤들에 대해 마치 권위자인 것처럼 내세워지는 전통적 인류학의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다.

후기 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의 발전 이후에도 인류학적 접근법, 특히 문화기술지적 연구법은 예술무용에 속하지 않은 하위집단의 춤, 길거리 춤, 제 3세계의 춤, 대중춤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그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발레,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댄스의 현장들에 문화기술지적 연구법을 적용한다. 이 책의 편집자인 다비다는 이제 예술 무용계에 대한 문화기술지라는 개념이 전개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 서양의 클래식 발레가 위계질서의 최정점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미학은 탈정치적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오래된 관념이 이제는 재고되어야 하는 가치관이라는 것도 강조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algedi4236@gmail.com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연구 대상 혹은 참여자들을 ‘타자’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무용형식과 무용인들을 낯설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한다. 이런 점에서 『움직이는 현장』은 이전에 출간된 3개의 서양 예술무용 문화기술지의 계보를 잇는다. 먼저 신시아 노박의 『(접촉에 의한) 즉흥무용의 이해 *Sharing the Dance*』(1990)은 이 포스트모던 무용 실천을 1970년대 미국 반문화의 상징으로 이론화한다. 다음으로 헬레나 울프의 『국경을 넘나드는 발레 *Ballet across Borders*』(1998)는 미국과 유럽의 발레단을 조사하여 발레문화가 초국가적으로 공통적인 가치관과 전통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제니퍼 피셔의 『호두까기 인형 국민 *Nutcracker Nation*』(2003)은 매년 크리스마스 마다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발레단체들이 공연하는 호두까기 인형이 미국문화에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한다. 이 3명의 저자들은 자신이 익숙한 예술무용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각각의 예술무용 실천들이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논의한다.

사실 이러한 연구자의 위치, 혹은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는 학문적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상기시킨다. 가장 큰 문제로는 객관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과 특히 페미니스트 연구의 영향 하에서 학자의 완벽한 객관성이라는 관념은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연구가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며 개인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추정과 직관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방법과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자신이 미처 몰랐던 선입견이나 가치관등이 조명된다. 또 저자들은 연구에 있어 요구되는 학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전략들을 자세히 묘사한다. 예를 들어, 저자 중 한 사람인 케이즈메주(Cazemajou)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과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자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저자들은 현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자의적인 것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참여자와 협동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연구자 자신의 목소리와 참여자의 목소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협동작업을 통해서 독자가 능동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 독자는 연구의 결론 뿐 아니라 연구의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본인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구성적으로 보면 이 책은 서문과 서론, 에필로그 외에 4개의 섹션으로 나뉜 22개의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섹션의 제목은 ‘전략, 모델, 방법’, ‘자문화기술지를 체현하기’, ‘창의적 과정과 교육 들여다보기’, ‘안무를 문화적·영적 실천으로 드러내기’이다. 첫 번째 섹션인 ‘전략, 모델, 방법’은 말 그대로 문화기술지를 수행하는 연구법에 대해 소개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각각의 현장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독특하고 고유한 위치에 따라 주요하게 작용하는 전략들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혹은 면담의 경우 피셔는 “집으로 가져가는 인터뷰”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조엘 벨렛 Joëlle Vellet은 “유도된 기억 인터뷰”가 효과적이었다고 논의한다. 각각의 인터뷰 전략은 연구자가 참여자로부터 좀더 내밀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끄집어 낼 수 있게 하는 장치이자 그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능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연구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그 구체적

수행 방법은 다르게 진행된다. 두 번째 섹션인 ‘자문화기술지를 체현하기’에서는 저자들이 자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들을 논의한다. 여기에서는 연구되는 대상 현장과 참여자들에게 대한 이야기 만큼이나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의 자기 성찰이 주를 이루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일기장에 써야 할 것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학문적 담론과 연결되는 지점을 보는 것이 생소하고도 신기한 인상을 준다.

세 번째 섹션인 ‘창의적 과정과 교육 들여다보기’는 창의적 과정으로서의 안무와 교육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 이 연구자들은 본인이 현장에 느꼈던 의문들과 문제점들에서 연구를 시작하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어, 파멜라 뉴웰 Pamela Newell과 실비 포틴 Sylvie Fortin은 안무에서 무용수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가능하며 그 종류와 무용수의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의한다. 안무자가 전적으로 안무과정을 통제하며 무용수는 단지 그 아이디어를 잘 실행하는 역할에 그칠 때, 안무자의 미학적 이상에 맞추기 위해 무용수의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도 생긴다. 더 강렬한 표현을 위해 더 세계 바닥에 넘어지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 짓지는 않으며 그 안에서도 복잡한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지만, 예술을 위한 인간의 도구화가 과연 윤리적인 것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또 다른 예는,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소매틱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다. R. 벅(Buck), S. 포틴(Fortin), W. 롱(Long)은 학생들이 공연자로서 기능적인 측면을 연마하는데 치중하는 교과과정과 몸 인식을 중시하는 소매틱 수업이 상충될 때가 많다고 지적한다. 소매틱 수업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그 수업의 교육적 기능이 뭔지 분명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점은 우리 대학 무용과에서 소매틱 관련 수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 섹션인 ‘안무를 문화적·영적 실천으로 드러내기’에는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안무를 문화적인 현상 혹은 영적인 실천으로 해석해보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브리짓 코테리(Bridget E. Cauthery)의 연구는 서아프리카 샤먼의 후손이 공연하는 트랜스에 대해 다룬다. 전통적인 서양의 관점에서 무아지경의 춤은 제 3세계의 원시적 문화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코테리는 컨템포러리 댄스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트랜스를 논의하며 그 문화사적 의미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 및 세계 공연 시장에서 상품화된 트랜스는 이국적인 공예품 수집의 관점에서 소비되기도 하지만, 그 무용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속시키며 자신의 문화적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공존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 문화를 세계 시장에서 유통시키고자 하는 무용가들이 새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움직이는 현장: 무용계의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를 공부하고자 하는 무용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적이다. 우선 문화기술지의 연구법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 현장의 설정과 계획, 연구문제의 설정, 사전 조사, 데이터 수집 방법과 과정, 데이터 분석의 방법, 데이터의 해석과 논평 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다양한 문화와 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브라질, 핀란드, 타이완의 춤과 문화가 논의된다. 때문에 영미권에 국한된 연구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한 춤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춤문화가 때로는 생소하거나 관심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모두 발레, 현대무용,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예술무용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무용 관련자라면 흥미롭게 읽혀질 내용들이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스타일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들은 창의적이고 주관적이며 복합-발성의 글쓰기를 구사한다. 특히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몸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서 전통적 학문적 글쓰기의 3인칭 대명사 대신 1인칭 ‘나’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로써 춤추는 몸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는 지식들, 전통적으로는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진다.

『움직이는 현장: 무용계의 문화기술지』가 캐나다에서 출판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문화기술지를 적용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우리나라 무용학계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 책이 다른 나라의 춤문화에 대한 이해 만큼이나, 나 그리고 우리의 춤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